

주소 : <http://www.segye.com/Articles/NEWS/WHOLECOUNTRY/Article.asp?aid=20081224003018&subctg1=01&subctg2=>

대구 문예회관, 시민 문화생활은 '뒤틀린'

순수공연보다 대관·강좌 위주 운영... 제 기능 못살려
선거용 '문지마 건립'...운영 전문성 떨어져 적자 허덕

대구시 각 기초자치단체가 수백억원을 들여 지은 문화예술회관들이 기초 문화 강좌와 대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문화 활성화'라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8개 구·군 가운데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구가 문예회관을 갖고 있다. 문예회관 건립률은 87.5%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주공연장 기준 가동률은 50~70%에 머물고 있다. 연간 13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서구 문화회관의 경우 지난 한 해 올린 대관 공연 수입은 고작 3900만원이다.

17억원의 연간 운영비를 쓰는 북구문화예술회관도 9300만원 수입에 그쳤고, 남구 대덕문화전당은 대관 수입으로 3800만원을 벌었다.

대구 기초 지자체 가운데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수성구의 '수성아트피아'의 경우 지난해 12억7100만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적자 운영에 허덕이고 있다.

북구문화예술회관은 임대수입과 예약장 사용료, 문화강좌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같이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적자를 전혀 메우지 못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발생한 적자만도 8억3856만원에 달한다.

이는 문화예술회관이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돼 직원 대부분이 비전문적인 인력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실제 공무원이 배치되다 보니 기획·마케팅·문화행정의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 문예회관이 단순한 대관과 문화강좌 위주로 운영돼 높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를 의식한 민선 단체장들이 수익성이나 타당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건물만 지어 건립 후에는 공연사업보다는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다. 또 비문화 및 상업성 행사 위주로 이용되고 있어 문예회관으로서의 제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한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연간 대관의 절반 이상을 11월에서 2월까지 이어지는 어린이 재롱잔치로 채우고 있다”고 실토했다.

남구 대덕문화전당은 올 들어 56회의 기획행사를 열었는데, 이 가운데 연극과 음악, 뮤지컬, 전시 등의 순수 문화공연은 16회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40회는 각종 행사들로 채워졌다. 전체 예산 9억5000여만원 중 기획공연 예산은 8900만원에 불과, 전체 예산의 10%도 채 되지 않았다.

지역 문화계 관계자들은 “문화회관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문예회관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차별화와 함께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마케팅 전문가를 배치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 문예회관 간 네트워크 구성으로 인력과 정보 공유 등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진정한 문예회관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

였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기사입력 2008.12.24 (수) 16:39, 최종수정 2008.12.24 (수) 16:46

세계닷컴 뉴스 및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GYE.com COPYRIGHT © SEGYE.com All rights reserved.